

## 취 임 사

아주대학교 교 수 한 만 정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연구와 사업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학회사업에 별 공헌한 것도 없고 학문적 업적도 많지 않은 제가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1대 학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학회의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창립된 이래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하여 왔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고분자 과학분야를 이끌어 가는 중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활동도 학회지를 비롯하여 춘·추계 학술 발표회 및 여러가지 산·학 협동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이나 회원수도 증가하여 국내 다른 학회에 비하여 손색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 비하여 질적인 향상은 아직 우리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분자 학회의 발전방향은 양적인 팽창과 동시에 질적인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성수지나 합성고무등 고분자 물질의 생산량에 있어서는 세계 5위 권내에 진입하였으나, 고분자의 연구업적에 있어서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만 우리나라 자생적인 연구과제의 도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Post-Doc.으로 1년정도 외국에 연수하면서 보고 들은 연구과제들을 귀국하여 답습하고, 2~3년 지나면 다시 고갈되어 버리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학회의 학문적 발전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설사 연구과제는 동일하더라도 접근방법이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와 연구방법을 모두 해외에서 하는 방법을 모방한다면 연구자의 독창성은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산학협동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지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업계와 학계의 긴밀한 유대는 절실히 요청되지만 아직 학계의 연구 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연구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기초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연구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근년에 국내에서도 많은 고분자과학자들을 배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귀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진학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여 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첫째 학회내 저명한 학자들을 집필진으로 총망라하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과학”의 교과서를 편찬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96년 IUPAC 조직 위원회가 이미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학회로서 최대의 후원을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 플라스틱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플라스틱 실용화 기술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넷째로 제2회 한·중 고분자 심포지움을 95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 학회일을 담당할 운영간사진은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 전반을 담당할 전무이사에는 한양대의 임승순 교수님이며 학회운영의 경험이나 학문적 업적에서 볼 때 매우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여러분을 소개하면 총무이사에 단국대 강두환 교수, 재무간사에는 KIST의 김정안 박사, 편집에는 한양대 이영무 교수, 서울대 차국현 교수, 인하대 진인주 교수, 기획에는 성균관대 김진환 교수, 인하대 최형진 교수, 생산기술연구원 허완수 박사, 조직에는 단국대 공명선 교수, 아주대 장지영 교수, 계명대 하기룡 교수님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 유능한 분들이어서 학회 운영이 순조로울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